

‘북중미행 도전’ 홍명보호, 오늘 6월 월드컵 예선 명단 발표

오는 26일 6월 A매치 명단 발표
6월6일 이라크·10일 쿠웨이트전
승점 1 획득 시 본선 진출 확정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이 내일 6월 A매치에 나설 태극전사를 발표한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이라크전과 10차전 쿠웨이트전에 나설 명단을 공개한다.

한국은 이번 6월 A매치 기간 총 두 차례의 경기를 갖는다.

내달 6일 오전 3시15분 이라크 바스라의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FIFA 랭킹 59위 이라크와 경기한 뒤,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134위 쿠웨이트와 격돌한다.

잔디 문제로 지난 3월 A매치 2연전 때는 고양종합운동장,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했으나, 다행히 이번에는 ‘한국 축구 성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 예선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국은 이번 2연전에서 단 승점 1만 획득해도 B조 2위를 확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4승4무(승점 16)의 무패로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첫 상대인 이라크는 3승3무2패(승점 12)로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5무3패(승점 5)로 조 최하위에 머무는 중이다.

이번 3차 예선은 각 조 1, 2위가 본선에 직행한다.

이에 이라크는 2위 요르단(승점 13)을

제치는 건 물론, 한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전력을 다할 거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라크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이라크는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 전 한국 사령탑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호주 출신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수스 카사스(스페인) 감독을 경질한 이후 후임자로 아놀드 감독을 선임했다.

과거 두 차례 호주 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있는 아놀드는 한국을 상대로 반전을 노린다.

지난 3월 A매치에 승선했던 주요 유럽 파들은 이번 6월 대표팀에도 함께할 전망이다.

핵심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주전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이 홍 감독의 부름을 받을 거로 보인다.

특히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상황이 좋다.

발 부상에서 복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프로 데뷔 15년 만에 우승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덜 상태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지난 22일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을 차지했다.

토트넘은 지난 2007~2008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트로피를 거머쥐며 함께 무관 탈출에 성공했다.

국내파들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늦게 핀 꽃’ 주민규(대전하나시티즌)는 K리그1 울산 HD를 떠나 대전 유니폼을 입



은 이후에도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득점 페이스가 저조하지만 여전히 리그 득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문장 조현우(울산)도 여전히 소속팀에서 신들린 선방을 자랑하고 있다.

하나은행 K리그1 2025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골 고지를 밟은 전북현대 공격수 전진우 등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편 홍명보호는 이날 명단 발표 이후,

6월2일 인천국제공항에 소집해 곧장 이라크로 출국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편 문제로 전세기를 타고 이라크로 이동할 예정이다.

홍 감독을 필두로 국내파와 소속팀 일정이 일찍 끝난 해외파 등이 본진으로 출국한다. 소속팀 일정이 늦게 마치는 해외파들은 현지에서 합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찰초, 우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향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커머스레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중분사업조합 시흥 GS건설 (주)한화/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062) 607-8338

‘K리그1 득점 1위’ 물오른 전진우… 생애 첫 태극마크 달까

가장 먼저 리그 두 자릿수 득점

홍명보 감독 앞에서 맹활약 펼쳐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 공격수 전진우(26)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26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9차전 이라크전(원정·6월 6일), 10차전 쿠웨이트전(홈·6월 10일)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을 공개한다. 현재 4승4무(승점 16)로 예선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이번 6월 A매치 2경기에서 승점 1만 추가해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이에 홍 감독은 이번 6월 A매치 명단에서도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지난해 11월 A매치부터 이어온 기존의 틀을 유지할 거로 보인다.

새 얼굴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시즌 물오른 경기력을 뽐내는 전진우가 그 주인공이다.

K리그2 수원삼성 유스 출신인 전진우는 지난 2018년 수원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밟았다.

상무에서 활약한 시절을 제외하면 수원 소속으로만 6시즌을 뛰었으나, 유스 시절에 받았던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2022년 전세진에서 전진우로 개명까지 하며 부진을 털기 위해 노력했으나, 진정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수원 소속으로 K리그1에서 86경기 9골6도움에 그쳤다.

팀이 K리그2 강등됐던 2024시즌 전반기에도 16경기 1골1도움에 전부였다.

그러나 아직 어리고, 잠재력이 많은 전진우는 지난해 여름 전북으로 둥지를 옮겼다.

전북에서 첫 시즌을 보내며 예열한 그는 이번 시즌 팀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다.

양발과 허벅지 등 다양한 신체 부위로 득점하면서 날카로움을 과시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시즌 구단 사상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PO)에 가는 부진을 겪었으나, 전진우의 득점 행렬에 힘입

어 리그 최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다.

특히 전진우는 지난 17일 FC안양전에서는 멀티골을 기록, 이번 시즌 K리그1 선수 중 가장 먼저 두 자릿수(10골) 득점 고지를 밟았다.

전북은 전진우의 활약 덕에 2-0 완승을 거뒀다.

마침 안양전 현장에는 홍 감독이 왔었고, 전진우의 활약을 직접 확인했다.

대표팀 2선에는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파들이 버티고 있으나, 최전방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고 컨디션이 좋은 전진우가 깜짝 발탁될 수도 있다.

전진우는 20세 이하(U-20) 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에서 뛰 적은 있지만, A대표팀에 소집된 적은 없다.

/뉴시스

장흥군청 육상팀, 전국대회서 금메달 포함 성과 ‘풍성’

김민수 선수 멀리뛰기 금메달… 해머던지기, 경보도 선전

장흥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밀양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렸다. 장흥군청 육상팀은 멀리뛰기, 해머던지기, 원반던지기, 20km 경보 등 다양한 종목에 총 4명의 선수가 출전해 팀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장흥군청 소속(현 국군체육부대)

김민수 선수는 멀리뛰기에서 7m 74cm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 대회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해머던지기 종목에서는 권수아 선수가 5위, 김진 선수가 6위를 기록해 꾸준한 경기력을 입증했고, 박정민 선수는 20km 경보에서 4위를 차지하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다.

한편, 장흥군청 소속(현 국군체육부대) 이자 국가대표인 김장우 선수는 부상으로

불참했지만, 팀은 다음 달 예정된 전국대회에서 더욱 높은 성과를 목표로 훈련에 매진 중이다.

장흥군청 육상팀은 2020년 창단 이래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 체육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 성과 역시 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의 결과로 평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무대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